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1 월의 기도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편 37:4-6 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2024 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딱나는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늘 섬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 월에는 사랑하는 아틀란타의잔스크릭한인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이 먼 페루의 끝자락 딱나까지 방문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연세에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시려고 지팡이를 짚고 긴 시간 힘들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작은 사역들에 화이팅 해주시니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텝들이 그러더군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이 여기는지 느꼈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5 년전에 파송교회 단봉선팀이 페루의 딱나를 방문한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아틀란타 잔스크릭교회에서 단기방문팀이 딱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과 Mision Shammah 리더들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2 월 초 부터는 성탄절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즐겁고 귀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저희는 바쁜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물(물통, 초콜렛, 과자,사탕)을 준비해서 잘 포장하고, 이곳에서 성탄절이면 먹는 빠네톤과 초코우유도 함께 준비하여 소년원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촌 삼마 이야기:

성탄절에 성경을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롬 8 장, 히 11 장, 마 5 장 가운데 한장 전체를 다 외우는 것입니다. 15 명이 시도를 했으나 5 명만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아무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노력한

모습이 보여 노력상으로 빠네톤 한 봉지씩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을 초대해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은 쌀과 설탕, 아이들은 준비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년원 이야기: 성탄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소년원의 관리자들이 함께 성탄절 식사를 하도록 저희 미션 삼마가 섬겼습니다.

23 일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성경공부를 마친 Everlyn 팀 아이들에게 시상식과, 개인적으로 성경을 쓴 아이에게는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탄절 작은 선물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촌 Vila-Vila 이야기: 부모님들도 초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부모님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부모님들에게는 쌀과 설탕을 학생들에게는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월 초에는 길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빠네톤과 초코렛 우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 한다고 배고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새해 따스한 인사와 주님을 알리는 소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 하신다면 한달에 한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희망을 전달 할수가 있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4 년에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미션 삼마**”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것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션 삼마가 믿지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여름방학 프로그램사역을 통해 복음전도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Misión Shammah 리더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3. 막내 베키가 새로 편입한 Biola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 장거리사역을 위한 큰 자동차(suv)구입에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5.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